



인협, 2009년 국고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 전개



- 인쇄공용 서체(바른바탕체) 개발
- 인쇄물 품질표준화 연구
-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 전시회
- 친환경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인쇄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세계인쇄강국 진입위한 진흥방안 연구
- 해외도서전에 한국인쇄관 조성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2009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4억3천만 원)와 청주시(1억 원)로부터 5억3천만 원을 지원받아 ▲인쇄공용 서체(바른바탕체) 개발 ▲인쇄물 품질표준화 연구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 전시회 ▲친환경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외도서전에 한국인쇄관 조성 ▲인쇄 전문인력 양성 교육 ▲세계인쇄강국 진입을 위한 진흥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국고 및 지방비 5억3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인쇄공용 서체(서체명 : 바른바탕체) 개발

인쇄공용 서체(서체명 : 바른체) 개발에는 총 1억1천만 원이 투입돼 바탕체(명조체)를 개발했다. 4개 서체개발 전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 입찰을 통해 산돌커뮤니케이션(대표 석금호)을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글 가나체 중간체 굵은체 각 2350자와 약물 가나체 중간체 굵은체 각 986자 등 10,008자가 만들어 졌다.

동 서체는 CD로 제작해 인쇄업체 및 관련업체에 무료 배포했으며, 대한인쇄문화협회 홈페이지(print.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협은 동 서체개발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으로는 홍우동 인협 회장, 김남수 인협 부회장, 황정혜 청우 대표, 안상수·박병천·한재준 교수, 이승구 대학교과서 전 사장이 참여했다.

이번에 개발된 바른체는 현대적 인쇄기술에 맞춰 세련된 디자인과 신선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신개념의 과학적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정확하고 한글창제 정신에 입각한 획의 구조를 표현하여 한글의 기본 형태를 익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엘리먼트와 획을 단순하여 현재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표현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울리도록 하여 한국 고유의 선을 살림 △글 줄선을 정렬하여 읽을 때 안정감을 줌 △속 공간을 크게 하여 시원하고 또렷한 조형미를 갖춤 △정확한 획의 구조 표현으로 일관되고 바른형태의 한글 자모가 되도록 함 △획과 부딪치는 장식적인 돌기와 붓감을 제거하여 세련되고 몽

치는 현상을 없애 가독성을 높임 △획의 두께를 고르게 하여 비율을 안정감 있는 판면이 형성되도록 함 △구문 기호 및 특수 약물과 한글의 조판에 있어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훈민정음의 창제원칙, 초성과 종성의 일치, 가독성과 인쇄효과를 위하여 'w'과 'z'을 갈라 씌움 △가독성과 인쇄효과,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초성이 아닌 'o'의 상투를 생략 △인쇄출판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서체명을 바른바탕체로 정한 이유는 형용사적으로 부르기 쉬운 이름을 부여하여 일반인들에게 서체에 대한 개발취지를 이해시키고, 순 한글의 아름다운 이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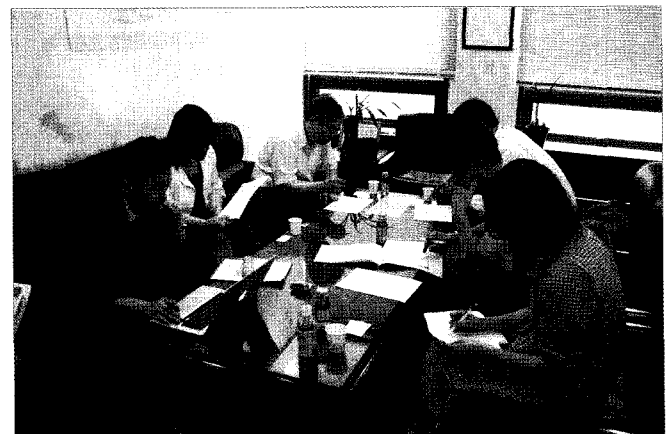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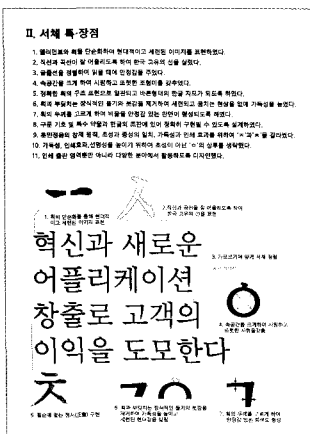
인쇄물 품질표준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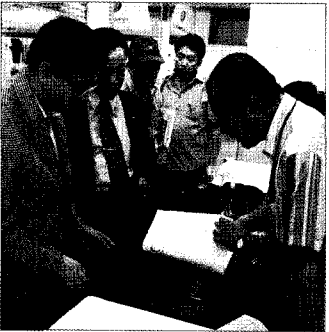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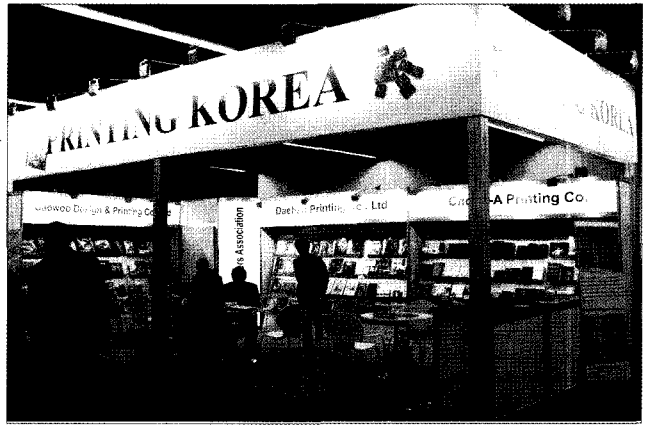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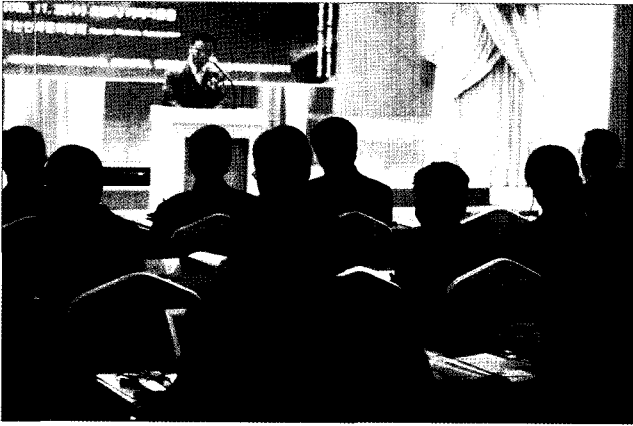
인쇄물 품질표준화 연구는 2천5백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연구사업이 진행됐다. 연구진은 구철회 부경대학교 인쇄공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이재수 일진퍼펙트스 부사장·송경철 부경대학교 인쇄공학과 강사·조기람 부경대학교 인쇄공학과 강사·김재해 산업인력관리공단 팀장이 공동연구원으로, 임남숙 월간 프린팅코리아 차장·서석진·이원규 부경대 대학원생이 보조연구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동 연구보고서는 △국내 인쇄산업 표준화 △부처별 표준화 정책 △5대 중점 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 △주요 핵심기술 및 표준화 동향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 현황 △주요 국가별 표준화 추진 현황 △인쇄품질 시험인증 기구 및 추진체계 △국내 인쇄기술 표준화 추진방향 및 표준화 로드맵 활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 전시회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 전시회는 국고와 지방비 등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전시관은 인제대학교, 대한민국축제박물관, 파주어린이책잔치, 2009서울국제도서전, 제주대학교박물관, 뉴욕 북엑스포아메리카, 호반여름축제, 국제특수인쇄산업전시회, 의정부과학도서관, 서울인쇄축제, 대한민국지방자치대전, 가을독서문화축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파주북시티가을책잔치, 전국도서관대회 등에 설치했다.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관에는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넬을 비롯, 서울인쇄대상 수상작 등 현대의 인쇄물들도 전시했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며 관람 안내와 직지금속활자관 인쇄체험을 실시하는 한편 관람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상영하기도 했다.

친환경 인쇄 국제컨퍼런스 개최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인쇄기술 국제컨퍼런스는 국고 2천만 원과 민자(후원을 통해 인협이 부담) 1천5백만 원이 투입돼 지난해 11월 25일 호텔PJ 4층 카라디움 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됐다. 유창준 본지 편집국장의 사회로 '친환경 인쇄기술의 현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처음 열린 동 컨퍼런스는 단체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인쇄 및 관련 학계·업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3개국 동시동역으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인쇄'라는 주제의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독일 아림 소업 박사(독일에너지환경연구소 연구원)가 '유럽의 친환경인쇄 기술동향과 전망'에 대해, 일본 기노시타 도시히로 매니저(주)동양인쇄(주) 품질환경센터가 '일본의 친환경인쇄 기술동향과 전망'에 대해, 이학래 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가 '인쇄용지 분야의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원재 소장(주)동양인쇄(주) 기술연구소가 '인쇄잉크 분야의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김명

성 상무이사(주)한진피앤씨가 '우리나라 인쇄업체의 친환경인쇄 현황과 전망'에 대해, 김종규 소장(GMP인쇄연구소)이 '인쇄 후가공 분야의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인쇄업계도 '친환경 인쇄'라는 세계적 흐름에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친환경 인쇄'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친환경 인쇄' 국제컨퍼런스는 친환경 인쇄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해외도서전에 한국인쇄관 조성

인협 주관으로 국고 1억 원을 투입하여 뉴욕도서전(북엑스포 아메리카)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한국인쇄관을 조성, 우리나라의 찬란했던 고인쇄문화와 현대의 인쇄를 홍보하는 한편 다수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중심이며 전 세계 출판인들이 모이는 독일 도서전시회에 참가하므로써 신규 인쇄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한국의 인쇄문화를 알리는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뉴욕에서 열린 2009 북엑스포아메리카에는 40m² 규모로, 독일에서 열린 2009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는 32m² 규모로 한국관을 꾸몄다.

인쇄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인쇄전문 인력양성 사업에는 6천5백만 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한달간 인쇄문화회관 교육관에서 인쇄수출전문가 양성과정, 그래픽이미지 가공과정(인디자인 편집), 디지털 인쇄 실무과정 등 3개 과목의 무료 교육이 진행되었다.

‘인쇄수출전문가 양성과정’은 김남수 인쇄물수출진흥협의회 회장, 배성민 미래엔컬처 해외영업팀장, 김춘옥 청아문화사 해외 영업팀장, 박용규 타라티피에스 해외영업팀장이, ‘그래픽이미지 가공과정(인디자인 편집)’은 유창준 본지 편집국장(동원대학 출강), 김호문 무른모 대표가, ‘디지털 인쇄 실무과정’은 이문학 인천전문대 교수, 오세웅 신구대학 교수가 집필인으로 참여했으며 집필진 및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를 맡았다. 인협은 교육이 마무리된 후 수료증을 발급했다.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인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인쇄문화회관 내에 100㎡ 규모의 인쇄문화 교육관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등 그래픽 이미지 가공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췄다. 35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PPT 시설과 음향장비도 구비해 놓았으며 냉난방 시설도 갖췄다. 인협은 동 교육관을 각종 세미나와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임대도 할 예정이다.

세계 인쇄강국 진입위한 진흥방안 연구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현재 세계 12위권인 우리나라 인쇄산업을 10대 이내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 3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 TF를 구성하여 ‘인쇄문화산업 진흥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연구를 위해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TF의 연구진은 책임연구원으로 오성상 신구대학 그래픽아트 미디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으로 이재수 일진PMS 부사장(동국대학교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유창준 월간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 김성수 국군인쇄창원구사(인쇄공학박사), 조가람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 강사(인쇄공학박사), 장성문 (주)두산동아 수출 부장이, 보조연구원으로 윤재호 (주)나루코 대표이사, 황일하 대

한인쇄연구소 연구부장이 참여했으며, 전영표 박사(상록문화정보연구소 이사장), 금창연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출판문화학회 회장), 김원제 박사(성균관대학교 강사)가 감수를 맡았다.

동 보고서는 △서론 △인쇄 문화 산업 발전 과정 △인쇄 문화 산업 현황 △해외 인쇄 문화 산업 현황 △당면 과제 △21세기의 인쇄문화 산업을 담는 한편, 인쇄 문화 산업 진흥 정책 과제로 7대 사업 29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창출 방안 연구 △인쇄 문화 산업과 지역 문화를 연계 융합한 문화 콘텐츠 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 개발 △인쇄 기술 자료집 및 동향 보고서 발간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 및 특수인쇄산업전시회 활성화 △〈직지〉 및 한국 인쇄 문화 홍보 사업 △해외 시장 개척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선진국 인쇄 기자재 개발 실태 분석 및 국내 인쇄 기자재 개발 △선진국 인쇄관련 특허 현황 요람 발간 및 국제 특허 출원을, 인쇄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인쇄물 선정 및 포상 △국제 학술 포럼 및 국제 인쇄 기술 세미나 개최 △세계 인쇄회의의 국내 개최 △인쇄물 품질 표준화 사업 △국내 인쇄관련 교육 기관 연구인력 및 연구 과제 요람 발간 △인쇄백과 대사전 발간을, 인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POD(Print On Demand) 활성화 △인쇄 산업 단지 조성 △세계 인쇄 박물관 건립 △인쇄 진흥 재단 설립을, 인쇄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쇄 교육 기관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시설 지원 △국내외 인쇄 전문가의 인적 교류를 통한 수출 전문가 양성 △산업체 중심의 인쇄 전문가 라이선스 제도 확대 △편집 인쇄 교정 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를, 인쇄 신기술 개발 및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인쇄 시설과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 방안 연구 △블루오션 창출 방안 연구를, 그린 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 친환경 인쇄 기술 현황 파악 및 인적 교류 △친환경 인쇄 재료 및 인쇄 기술 개발을 제시했다.

동 7대 과제는 10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 3천51억 원, 민자 2654억 원, 지방비 132억 원 등 58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